

실마리 안보이는 '진각종 갈등'

전·현직 통리원장 법정소송으로 극한대립 치달아

전·현직 통리원장의 갈등과 대립이 소송으로 번지는 등 올해로 창종 60주년을 맞은 진각종의 내홍이 해를 넘기고 있다.

진각종은 12월 11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전 통리원장 효암정사를 서울 상월곡동 총인원내 성취관 사택으로 대기발령 했다. 이는 효암정사가 회정 현 통리원장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에 신청한 징계 및 인사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이 지난 10일 기각된 데 따른 것이다.

전·현직 통리원장의 갈등은 효암정사가 통리원장으로 재직할 당시 수행 도량 건립을 위해 사들인 강원도 홍천의 토지가 발단이 됐다. 현 통리원 집행부가 이곳은 효율성이

없다며 홍천의 땅을 매각하기로 결정하면서 불거졌다. 이에 효암 전 원장은 통리원 재무담당 종무원인 김모씨를 서울북부지법에 황령 협의로 고소했으나 2차 항고까지 무혐의 처리됐다. 이것이 전·현직 통리원장이 극한 대립으로 치달게 된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

급기야 현 집행부측인 사감원이 갑을 뽑아두고 종법과 전통을 무시하고 종단 기강을 해했다는 이유로 효암 전 원장에 대해 품수 7급 강등, 공권징지 10년이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7급은 초임 스승에게 부여되는 급수로 효암 전 원장의 이력으로는 불명예 강등이다. 또한 인사위원

회는 효암 전 원장을 10월 11일자로 탐주심인당에서 구미 보광심인당으로 인사 발령했다. 그러나 효암 전 원장은 명예회복이 되지 않는 한 인사 명령을 따를 수 없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회정 통리원장은 12월 14일 성명서를 통해 "대한민국 사법부의 판단에 의해 모든 것이 혐의 없음이 밝혀진 이상 앞으로 적법한 집행 절차가 방해받는 사태에 대해서는 승속을 불문 엄중 대처할 것"이라고 경고성 발언을 내비쳤다.

이에 대해 효암 전 원장은 "12월 17일자로 서울중앙지법에 항고장을 접수했다"며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끝까지 투쟁하겠다"는 강경한 입

을 밝혀 문제 해결까지는 긴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 사태를 지켜보고 있는 진각종의 한 교도는 "창종 60주년을 맞은 올해 제2의 장종을 한다는 마음으로 승종 진작과 종도들의 화합에 힘써야 할 시기에 갈등과 대립만 보여 주고 있는 종단의 현실에 비통함을 금할 수 없다"며 "조속하게 문제가 해결돼 진각종의 숙원 사업인 '진각종문화전승관' 불사를 시작으로 하루빨리 종단이 활기를 찾길 바란다"고 안타까운 심정을 토로했다.

한편, 진각종 통리원은 최근 3개월여간 네 차례에 걸쳐 스승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는 현 통리원장에 반기를 든 효암 전 원장과 인사 정사를 포함해 이에 동조한 이들에 대한 문책이라는 게 교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김주일 기자

"사찰규제 법 개정·문화재 예산 늘릴 것"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 불교공약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는 유세기간 동안 전통사찰 규제 법률을 개정하고, 불교문화재 유지 보수를 위한 정부예산 증액, 연등축제의 국가 전통문화 축제 지정, 10·27 법난 진상규명과 피해보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 등을 약속했다.

또한 올 한해 논란이 계속되어 온 사찰문화재관련 담요 징수에 대해서는 '정부의 일방적인 추진은 문제이고 문화유산관리 및 예산문제는 국가 차원에서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밖에도 이 당선자는 ▲북한 문화재 조사 및 복원사업 ▲권역별 불교문화재 개발 ▲해외반출문화유산 반환추진 ▲문화재위원 불교계인사 비중 확대 ▲폐사지 관리 및 복원시스템 구축 ▲국제불교문화 교류센터 건립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 당선자가 11월 13일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초청 간담회에서 밝힌 '제17대 대통령선거 한나라당 불교정책 공약'을 7대 과제로 요약·정리했다.

여수령 기자

- ▲불교관련 각종 법령 제·개정 = 불합리한 각종 불교관련 규제법규를 개정하고 불교사찰에 관한 법률을 전통사찰보존법으로 일원화해 전통문화 육성과 지원을 강화.
- ▲불교문화와 유적의 계승 발전 = 불교문화재 유지보수를 위한 정부예산 지원을 상향조정. 권역별 불교문화재 개발 사업 추진 및 불교전통문화예술품을 위해 관련학과 신설, 무형문화재 지정의 사전검증을 위한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추천제를 시행.
- ▲민족의 전통문화를 계승한 불교문화행사 지원 = 불교계의 대표적인 문화행사인 연등축제를 국가 전통문화축제로 지정해 지원육성한다.
- ▲국제불교문화교류센터 건립 지원 = 우리 민족문화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고 국제 교류 활성

- 화를 위한 국제불교문화교류센터 건립 지원.
- ▲화해협력과 상생을 위한 형평성 있는 종교정책 = 10·27 법난 특별법 제정을 통해 불교계의 명예회복과 피해보상을 추진, 대통령비서실에 전통문화담당비서관 신설 및 불교인을 임명.
- ▲남북불교교류와 북한불교 문화재 복원사업 지원 = 남북 불교문화교류를 적극 지원하고 북한의 주요 전통사찰 복원사업 지원 확대.
- ▲지속적 공약실현을 위한 (가칭)불교전통문화연구소 설립 = 불교정책공약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불교문화유산에 대한 종합적 보존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정부 출연으로 (가칭)불교전통문화연구소를 설립한다. 불교문화유산에 대한 기본정책을 수립하고 궁극적으로 불교문화유산은 불교계 자체적으로 관리토록 제도개선.

투표소에서 선교행위 '웬말'

전체 12%가 교회에 설치...유권자들에 소식지 등 배포

교회 내에 마련된 제17대 대통령 선거 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버젓이 선교 행위가 이뤄져 충격을 주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17대 대선에서 총 투표소 1만3178개소 중 약 1100여개소를 교회에 설치했다. 12%에 가까운 수치다.

문제는 이러한 교회 투표소에서 공공연한 선교 행위가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선거 당일 찾아간 서울 영등포구의 한 교회 투표소에서는 교회 신자들이 유권자들에게

"00교회에서 나왔다"며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넸다. 그뿐 아니라 '00교회에서 만드는 지역신문'도 유권자들의 손에 쥐어줬다.

투표소가 마련된 교회 곳곳에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라는 제목의 성탄예배 안내 포스터가 붙어 있었고, 투표소를 안내하는 표지판은 이 포스터 위에 붙어 있다. 해당 교회 측은 "선관위의 요청에 의한 것일 뿐 교회가 나서서 투표소 설치를 유지하는 것은 아니다"고 강변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선거 때 마다 교회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선교행위가 이뤄지는데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12월 19일 제17대 대통령선거가 진행된 서울 영등포구의 한 교회 투표소 모습.

는 투표소 공개가 시작된 12월 13일 이후 300여 건에 가까운 항의 글이 게시됐다. 이들은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에게 교회에서 투표하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한편 불교계 내에서도 종교시설 투표소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선거 2일 전인 12월 17일, 광주불교사암연합회(회장 정인)는 긴급 성명서를 내고 광주광역시 선관위를 방문해 "특정종교 시설물에 투표소를 설치한 것은 국가기관이 종교편향을 하는 것"이라며 시정을 요구했다.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위원장 손

안식)는 12월 2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특정 종교시설에 투표소를 설치한 기준을 공개하고 ▲종교간 형평성에 맞는 투표소 설치 ▲투표소에서의 직·간접적 선교행위 대책 강구 등을 촉구하는 공문을 접수했다.

이처럼 종교시설 대신 공공시설에 투표소를 설치해야 한다는 문제 제기가 있음에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교회에 투표소를 설치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 아니며, 장소 입대가 쉽고 주민들의 접근성이 높아 교회가 선정된 것일 뿐"이라며 개선 의지가 없음을 밝혔다. 여수령 기자

"먼저 스스로 목탁들고 기도하겠다"

관음사 주지 취임 원종스님

조계종 제23교구본사 관음사 주지에 원종 스님이 취임했다.

관음사는 대웅전 앞 특설무대에서 12월 15일 '제8회 한라산 영산대제 및 제주 관음사 진산식'을 봉행했다.

신임주지 원종 스님은 취임사를 통해 "관음사는 그동안 너무나 큰 고통과 시련을 겪었다. 이 큰 고통과 시련을 치유하겠다"며 "내가 먼저 스스로 목탁을 들고 기도하겠다"

며, 전국은 물론 세계 각국에서 관음사를 찾아오고 싶어 하는 틈틈이

태이 도량으로 꾸미겠다"고 계획을 밝혔다. 이어 스님은 "관음사 주변의 낙후된 시설과 환경을 쇄신하는 한편, 안방려관 스님이 이곳에 터를 잡고 수행한지 100주년이 되는 내년에는 스님의 유지를 받드는 불사를 펼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진산식에는 법화사 회주 시몽 스님, 대흥사 주지 범각 스님 등 사부대중 1000여명이 참석했다.

제주=김주일 기자

월정사 주지 후보 정념 스님

12월 15일 열린 조계종 제4교구본사 월정사 주지후보 선출에서 정념 스님이 94표를 얻어 3표를 얻은 정수 스님을 큰 표차로 따돌리고 당선됐다.

월정사 교구선거관리위원회가 15일 개최한 주지후보 선출을 위한 산중총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확정된 151인의 선거인 중 99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소청심사위원회 청우 스님

조계종 소청심사위원회 신임 위원장에 청우 스님(강릉 낙가사 주지)이 선출됐다.

소청심사위원회는 12월 1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제28차 회의를 열고 만장일치로 청우 스님을 위원장에 추대했다. 간사에는 원오 스님(용인 보각사 주지)을 선출했다.

여수령 기자

현대불교신문

영상사업단 사업안내

본사는 '현대불교 영상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영상을 통한 시각·청각을 동시에 자극하는 생생한 메시지 전달력으로 이미지 형성 및 설득력이 빠르고 정확합니다.

영상사업 분야

- 사찰총회 행사, 개인다큐(사건), 단체 사찰순례, 경의, 법문, 기업성지순례, 기업동영상총포제작
- 현대불교 영상사업단장/감독 김봉환(前 KBS/동아TV/활영감독, 강원대 영상학 강사)

문의 : 02-2004-8279

시공의 천년! 숲속의 향기! 천불의 미소!

직지사 템플스테이

대자연의 만다라 속에 부처님의 향기 가득한 직지사에서 번뇌의 속박에서 벗어나 참다운 인간의 길을 찾는 수행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청량한 산사의 맑은 공기를 마시며 머리와 가슴을 비우고, 천불의 미소처럼 본래의 밝은 자기를 되찾을 수 있는 특별한 체험입니다. 평화롭고 안전한 인생의 체험을 통해 세상의 티끌을 벗고 진정한 자유를 만끽하는 부처님 세상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제4회 직지사 동안거 어린이 산사체험

- 일 시 : 2008년 1월 7일 ~ 12일 (5박 6일)
- 인 원 : 선착순 50명 • 대 상 : 초등학교 1학년 ~ 6학년 • 참가비 : 150,000원
- 준비물 : 필기도구, 세면도구, 여벌옷, 외투, 운동화
- ※ 어린이 주민등록번호 필수 기재(안전보험 가입용)

차명상 정기 템플스테이

- 일 시 : 매월 마지막 토요일 ~ 일요일 (1박 2일)
- 인 원 : 선착순 20명 • 대 상 : 일반인(부모님 동반 중학생이상 가능)
- 참가비 : 70,000원(일반인) / 중고생 50,000원 • 준비물 : 필기도구, 세면도구, 간편한 복장

◇ 접 수 : www.jikjisa.or.kr ☎ 054)436-6084, 6174 (템플스테이 사무국)
◇ 계좌번호 : 우체국 702829-01-000591 (예금주: 직지사)

대한불교조계종 제8교구 본사 직지사 주지 성웅

무자년 새해맞이 보살대계 봉행

조계종 원로 의원 되심을 축하합니다

前 포교원장으로 한국불자포교에 평생을 보내신 무진장 큰스님! 수고하셨습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원로 의원으로 추대(2007.12.11) 되었음을 한국불자를 대표하여 정중히 축하드립니다.

.....

■ 행사내용

2008년(무자년) 새해를 맞아 부처님전 우리들의 마음자세를 새롭게 하고 불자가정에 보살의 삶을 살고자 서원의 대법좌를 마련하였습니다. 원로의원이 되신 큰스님의 신년법문을 듣고 보살대계 수계를 봉행하오니 뜻있는 불자들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 일 시 : 2008. 1. 12(토) 오후 4시
- 장 소 : 동산불교회관(서울 조계사 옆)
- 대 상 : 일반불자, 무진장 큰스님과 인연있는 모든 불자
- 사무국 : ☎ 02)732-1206

불교교육 전문도량 **동산반야회 · 동산불교대학 일동**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46-20